



Na Hyeon Park

Web Designer



박나현



92/09/13



부산 수영구 수영로 568 1305호



010 5092 3366



dxzdxz77@daum.net



<https://dxzdxz77.github.io/portfolio>

Microsoft

Excel

PowerPoint

Word/한글

Skills

Photoshop

Illustrator

XD

HTML/CSS

jQuery

Cafe24

Education

2011.03 -
2016.02

경성대학교

2011-2012 미술학부(서양화,한국화,조소)
2012-2016 한국화

2008.03 -
2011.02

포항예술고등학교

2008-2009 미술과(서양화,한국화,조소)
2009-2011 한국화

Work Experience

2019.07 -
2020.01

빠빠용 미술학원

초등부/유치부 전임 강사

2018.12 -
2019.07

파랑새 미술학원

초등부 전임 강사

2017.10 -
2018.06

소미아트센터

초등부 전임 강사

2016.06 -
2016.09

신세계 문화센터

문화센터 미술 전문 강사

2014.11 -
2015.08

홍익아트

개인교습 방문 교사

성장과정

새로운 감각을 찾는 법

힘든일이 생길때나 벽에 부딪혔을 때,
뉴에이지를 들으며 **기분을 전환**시킵니다. 빠른
시간에 기분도 전환되고 뉴에이지를 가만히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부터 창의력과 미술 감각이 뛰어나 예술
고등학교와 예술 대학교에 입학과 졸업 후 미술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입시 미술보다는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미술 강사로
활동하며 아이들의 창의력과 미술활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미술을 IT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웹디자인과 퍼블리싱을 함께 배우며 웹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습니다.

성격

작은 습관과 생각이 나에게 주는 것들

저의 큰 장점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문고리의 생김새나 로고,
청소기의 버튼 모양, 단어의 뜻 등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웹 페이지를
만들 때에도 세심하게 하나하나 보기 때문에
남들 보다 완성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함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걸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넣다보면 더 혼란스러워지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작업속도를
올리기 위해 레퍼런스를 정해서 작업을 합니다.
레퍼런스를 보고 작업하면 작업이 빠르고
완성도도 높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읽고 공감을 하면서도 솔직한
의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

스미노프 "너를 표현하라" 부산팀에 들어가다

대학시절 SmirnoffKorea에서 디스트릭스
캔버스 배틀에 참가할 학생 작가들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의 거리를
표현하라!' 라는 주제로 5일 동안 건대, 홍대,
신촌, 부산 4곳의 지역에 설치된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시민들의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의 클럽에서 스미노프 피날레 파티를
진행하는 배틀이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팀의 인원은 6명이었고,
캔버스를 채워나가며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승패와는 관계없는
저희만의 추억을 만들고 있었고 **서로 칭찬하고
다독여주며** 저희 관계는 더 끈끈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두려움을
이겨냈고 **팀원들과 서로 믿고** 함께 하면 우리의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하는 것 보다 함께 할 때 더욱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후포부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다

이전까지 저에게 디자인이란 작가의 만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제작을 제작해가며 제가 만든
사이트가 사용하기 번거롭고 사진이 너무 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다양하고**
홈페이지를 사용하기 불편하다면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은
작가의 의도를 관객이 이해하는 반면 홈페이지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사용자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진 감각을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사용자의 눈으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홈페이지
안에서 즐거움과 새로움**을 안겨주고 싶습니다.